

빈틈의 그림자와 환영

윤상렬은 몇 년간(2005-2009) 샤프심을 붙여오다 지금은 샤프심과 디지털(컴퓨터)로 선(line)을 긋는다. 그것도 아주 가늘게, 0.3mm와 0.9mm의 사이, 0.01mm와 2.56mm의 사이의 다양한 굵기를 직선으로만 긋는다. 손과 디지털, 감성과 이성, 차이를 두고 공정과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종이위에 자를 대고 한 번에 수평으로 수없이 긋고, 긋는 과정에서 순간 스치는 '번뜩이는 섬광'을 머금은 채 그 느낌과 호흡을 유지하며 그 위에 필름을 겹친다. 그려진 선과 선의 간격을 자로 측정해가며 동시에 우연히 생기는 빛 그림자의 환영을 보면서 필름(투명)위에 치밀하고 밀도 있게 선을 계획적으로 긋는다. 그렇게 그려진 종이와 필름은 2mm에서 4.7mm까지의 간격을 유지하며 각각 다양한 환영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환영 뒤에 숨어 이미지를 조종하는 그림자의 존재는 무엇일까? 그리고 종이(감성)와 필름(이성)간의 간격에서 2mm와 4.7mm의 갭의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 주역이 아닌 보조적인 그림자와 공간은 서로 공존관계에 있다. 공간은 무형의 세계라면 그림자는 그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잔영이다. 무형의 세계와 인식의 잔영은 '기억이 지닌 의미소들'을 동반해야만 구체화 되고 각본이 쓰여 진다. 그러니까 윤상렬이 그간 지탱해왔던 기억의 축적들(두려움, 날카로움, 밀도의 습성, 평안함, ...)은 한편의 책만큼 집약되어 '그리고-붙이고-긋는'과정과 이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율의 환영>전시에서는 몇 권의 책이 쓰여 졌다. 전체 큰 제목은 <번뜩이는 섬광>이고 각각의 제목은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매년 소재물을 바꿔가도 될 만큼 의미 폭이 깊고 넓다. 보는 이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삶에서 겪은 윤상렬의 경험과 에피소드의 축적이 이 세 가지 관점(감성과 이성 그리고 이 둘을 포용한 커의 잔영들)에서 파생된 선들에 집약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작품을 대할 때마다 떠올렸으면 한다.

현장에서 경험한 '텍스트는 이미지를 넘어 설 수 없다.'는 의미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느껴져 윤상렬의 그림감상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적어도 필자의 바람은 미세한 촉수로 느낄 수 있는 빠르게 스치는 화살의 잔영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느린 탄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작가가 상상한 꿈속의 풍경화처럼 다가가기에 희망한다. 때로는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오다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마음의 파장이 모노톤처럼 평안히 다가오기도 한다. 그 수평선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시공간의 세계는 지속적으로 작가에게 불안한 움직임을 갖게 한다.

비주얼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산하기를 원한다. 반면 과거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가끔은 2004-2005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렸던 '먼지 드로잉'의 흔적을 머릿속에 새겨야한다. 뒷걸음질이 아니라, 도약할 때마다 긴장을 풀어주며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전에 선 긋기는 때로는 끊어서,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곡선으로, 숲과 도시의 복잡하게 엉켜진 구조를 드러내는 자유로운 행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긋고 보여 지는 것은 수평적으로 나타내지만 보여 지지 않는 불규칙한 감성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장의 진폭이 크다. 그 기억의 감성들을 종이와 필름의 '사이' 공간에서 지우고 다시 써 내려간다. 시간이 지나고 그 커들이 쌓여지면서 그림자와 환영은 서로 다른 두께를 드러낸다. 다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고 싶어 한다. 번뜩이는 섬광처럼 ...

이관훈(큐레이터,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